

# 도내 4개 도립공원 정비·복원 추진

### 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탐방로 등 시설 정비·식생 등 생태계 복원 쉼터·화장실·무장애 데크길 등 편의시설 확충·전문가 현장 컨설팅 실시

전북도가 도립공원의 생태환경 보전과 방문 탐방객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4개 도립공원(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에 37억 원을 투입 시설 정비와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문가 현장 컨설팅도 실시한다.

모악산은 탐방로 데크 설치와 보수, 위험 구간에 친환경 소재 난간 설치, 야자매트 교체, 배수로 등을 정비한다. 또한, 탐방객 안전을 위해 낙석 위험

요인을 제거, 저수지 주변 생태 숲도 조성할 계획이다.

대둔산은 삼선 철계단 보수, 지주식 주차장 볼트 교체 등을 통해 시설 안전성을 높인다.

아울러, 탐방로를 정비하고, 저지대에 위치한 돌레길도 정비해 명품화할 계획이다.

마이산은 화장실 1동을 신축하고, 노후화된 데크 교체 및 탐방로를 정비한

다.

선운산은 무장애 데크길 설치, 경관 폭포 조망 쉼터 조성을 통해 탐방객 편의를 높이고, 노거수 생물환경을 개선한다.

한편, 도립공원의 자연친화적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전문기관 구성된 생태복원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은 4월과 10월 두 차례 4개 공원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도는 자문단 의견을 2023년 도립공원 정비 및 복원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립공원에 대한 도민 친화력을 높여 공원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자연자원과 자연보호를 위한 실천사항 등을 담은 안내지도,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유희숙 도 환경복지국장은 “도립공원의 보전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원의 보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힘찬 첫걸음, 열정 가득!

### 전북도립여중고, 제25회 입학식 개최 선발 시험 거쳐 신입생 선발... 41~79세까지 연령 다양

성인 여성들의 꿈을 실현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이영희) 제25회 입학식이 3일 학교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입학식에는 신입생 58명(중 1 28명, 고 25명)이 실례 속에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신입생은 지난 2월 선발 시험을 거쳐 배움의 기회를 다시 찾았다.

올해 신입생은 최연소 41세부터 최고령자 79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배움의 길을 찾아 모여들었다.

신입생들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하고, 미래문화산업으로 식초 시장을 선점하고, 입지를 강화해 4대 식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 실현과 취업 연계를 위한 동아리 활동과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반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적인 인성교육, 진로교육, 창의 체험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998년도에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북도가 설립한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학력 인정 중·고등학교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산실이다.

올해 입학식 58명을 포함 지금까지 25회에 걸쳐 1,949명이 입학했다. 2022학년도 재학생 평균 연령은 65.1세다.

도는 지난해 베트남 까마우성 계절근로자 27명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도내 농촌 인력난 해소와 해외 국제교류의 실질적 성과를 거둔 국내 최초 사례로 기록된 바 있다.

올해도 시·군과 농가의 호응과 지원 요청이 있어 전북도는 적극적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추진한 베트남을 포함 해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해외교류 후보지역까지 도입국가로 포함해 적극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해외관계망과 국제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시·군이 자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양해각서(MOU) 체결(국내 기초자치단체↔ 해외 자치단체)을 통한 계절근

/유호상 기자

# 도,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선정

### 고창군, 공모 선정... 2023년까지 국비 20억원 확보 공유가공시설 신축·식초 공동생산·제조기술 지원

전북도는 농식품부가 공모한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관련기사 8면)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은 발효식초 산업의 안정적 생산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상품화 등 국내외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국비

20억 원을 투입한다.

식초 산업화를 위한 품질관리, 상품화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공유 가공시설 신축, 발효식초 공동생산 및 제조 기술을 지원해 농가형 소규모 업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식초를 제조하고자 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19년 식초문화도시를 선포한 고창군은 2021년 복분자·식초산업 특구로 지정돼 식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식초를 지역 대표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효식초 및 K-발사믹 산업화를 위한 식초 산업 인프라 구축, 기능성 및 품질 균일화 인 증기준 마련, 재확대를 위한 식초 아카데미, 찾아가는 식초 교실 운영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발효식초 가공공유시설은 누구나 제조 장비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규모 식초 농가들의 소독항상과 새로운 식초 시장을 개척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전북도 고창군이 5대 발효식품 산업 중 식초를 선정한 만큼, 미래문화산업으로 식초 시장을 선점하고, 입지를 강화해 4대 식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도내 축산물 업체, 방역·위생 상태 '양호'

### 도 특사경, 봄 개학 맞아 축산물 제도가공업소 51개소 점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봄 개학을 맞아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5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축산물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및 코로나19 방역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생활안전지킴이 등과 민관합동으로 도내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중·대형업체 51개소를 특별 점검했다.

이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도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보존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항목 준수, 식육 등 위생적인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업체 3개소를 제외하고, 축산물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해 종업원 건강관리, 작업장 환기와 소독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정화영 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축산물업체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교육홍보 등으로 축산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부정 축산물 유통과 위생사고를 차단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적인 행위 발견시 도청 특별사법경찰과 ☎(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청년 축산인 육성교육 실시

### 내달 11~15일까지 실시·만 40세 이하 축산업 종사 희망자 대상

전북도가 소속 축산시험장(진안군 성수면 소재)에서 오는 4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제1기 '청년축산인 육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전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에서 만 40세이하의 신규 축산인 및 축산업 종사를 희망하는 청년으로, 축산업 후계농·농가주인·축산업종사자·신규축산인·축산관련대학생·축산업종사 희망자 등이다.

오는 3월 18일(금)까지 주민등록상의 읍·면·동사무소에 교육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축산업 관련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축산인 육성교육'은 한우를 기르거나 하는 예비 창업인 및 신규 축산인의 안정적인 축산업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이다.

한우 사육 기초 및 한우인공수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이론교육은 사양관리, 사료 급여, 우사 설계 및 환경, 시설관리, 분뇨 이용 및 관리 등 축산환경개선, 번식 개량, 인공수정, 질병 등 한우 사육 관리에 필요한 기초이론으로 진행한다.

실습교육은 축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한우 보정법, 직장검사법, 생식기 탐색, 한우인공수정 등을 학습한다.

'청년축산인 육성교육'은 올해 총 2회 운영하며, 교육생 자부담 없이 무상으로 진행된다.

현장실습중심 교육인만큼 교육인원은 기수당 15명으로 제한되며, 2021년에 축산시험장에서는 총2회 교육을 운영해 28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임경환 도 축산시험장장은 “미래 축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한 축산 선진기술을 습득해 앞으로 전북도 축산업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농촌인력난, 도 국제교류로 해소 나서

### 해외네트워크 활용한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추진

전북도가 코로나19 인한 농촌 인력난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해외 우수지역으로부터의 계절근로자 도입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베트남 까마우성 계절근로자 27명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도내 농촌 인력난 해소와 해외 국제교류의 실질적 성과를 거둔 국내 최초 사례로 기록된 바 있다.

올해도 시·군과 농가의 호응과 지원 요청이 있어 전북도는 적극적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추진한 베트남을 포함 해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해외교류 후보지역까지 도입국가로 포함해 적극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해외관계망과 국제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시·군이 자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양해각서(MOU) 체결(국내 기초자치단체↔ 해외 자치단체)을 통한 계절근

로자 도입은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많은 인력을 일시에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농가 일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군에 매우 적합한 방식이다.

하지만, 해외관계망과 국제협상경험이 부족한 시·군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해외관계망과 국제교류 경험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추진하고, 최종적으로는 시·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지난해 고창군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나서 베트남 우수지역 까마우성과의 합의를 이끌었고, 최종 계절근로자 27명을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경험으로 고창군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해외 5개국, 11개 자매우호 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군 수요에 따라 기타 교류지역과 교류 후보지역으로 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삼보일배'로 이재명 후보 대선 승리 기원

### 조지훈 전 경진원장 전주 곳곳서 지지 호소 사전투표 등 참여 독려



충의 결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부동층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사심(邪心)과 사욕(私慾)의 정치판에 밀려날 수는 없다. 지리 나눠 먹기형 야합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한 뒤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대통령이 절실하기에 그 마음을 전하고자 삼보일배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4기 민주정부는 전라북도도 전주 발전의 동역자인 만큼 수도권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달라”며 “청년 기회국가를 위해 청년들도 투표에 참여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윤상 기자

# "투표가 곧 전주시민여러분의 의사표시"

###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사전투표 독려 나서 "유권자 힘 결집해 달라"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가 오는 4. 5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투표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 전 부지사는 이날 전주시장 브리핑룸에서 가진 회견에서 “투표가 바로 여러분의 의사표시”라며 한 분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북의 압도적 지지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유권자의 주권 포기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우 전 부지사는 “3월 9일 선거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하며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주권을 잃지 않게 행하여 이재명 후보 대선 승리에 전폭 유권자의 힘을 결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의 대통령은 미래를 설계해야 할 자리”임을 피력하고 “잘 알다시피 미래를 생각해 볼 시간이 없는 직업, 과거만 쳐다보는

파괴회귀형 후보에게 대통령의 중책을 맡길 수는 없다”며 “검증된 실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이재명 후보를 투표로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전 부지사는 이어 “이재명 후보는 국토균형발전을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북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도 선택은 자명하다”며 다시 한 번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윤상 기자

# 유튜브 Shorts 제작 청년 유권자 공략

### 유창희 전 도의회 부의장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국정농단 세력에게 정권을 뺏길 수 없다며 유튜브 Shorts를 제작해 2030 유권자 공략에 나섰다.

유 전 부의장은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젊은이들에게 길고 어려운 이야기 대신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영상을 제작해 나라의 미래인 2030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21일 시작한 ‘서울·

경기 지인들께 전하기 캠페인’ 영상은 올린 지 하루 만에 3천 회가 넘는 조회 수 달성으로 그 관심 정도가 높음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투표 일정 안내 영상, 하루에 한 번 이름 명에게 전하기 캠페인 영상, 지난 1일부터 시작해 4일 차가 되는 119배 캠페인 영상 등 다양한 내용으로 대선 선거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임정엽 전 원주군수 "100개 탄소기업 유치 이재명 공약 실현"

###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임정엽 전 원주군수가 이재명 후보의 탄소산업 육성 대선 공약과 관련해 전주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특별시로 만들겠다고 3일 밝혔다.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임정엽 전 원주군수가 이재명 후보의 탄소산업 육성 대선 공약과 관련해 전주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특별시로 만들겠다고 3일 밝혔다.

임정엽 전 군수는 이날 발표한 정책자료를 통해 탄

소소재가 항공우주산업과 건설, 풍력 산업 등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2030년 기준으로 1,000조원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임기 내 100개 기업을 전주에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선박부품과 통신케이블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국조선해양과 IS전선도 전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